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풀지 못하는 열쇠

테마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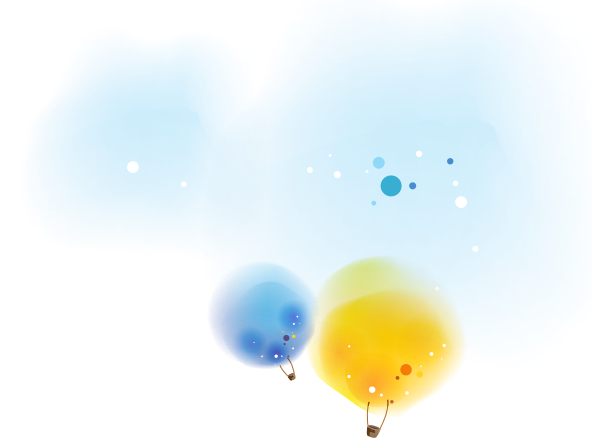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 터 뷰

벨리댄스로 열린 인생 2막, 송경희 님을
소개합니다.

포 커 스

우리나라의 화면해설방송의 진단을 위한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커피

04 | 시선집중

- 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풀지 못하는 열쇠
이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팀장)

06 | 테마기획

-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08 | 인터뷰

- 벨리댄스로 열린 인생 2막, 송경희 님을 소개합니다.

10 | 포커스

- 우리나라의 화면해설방송의 진단을 위한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오래달리기
백창진(시각 1급_경기도 군포시)

13 | 월드 리포트

- 중국의 시각장애 오토바이 수리 명인, 주 슈유
- 디즈니, 시각장애인에게 불꽃놀이 경험 선사해

14 | 뉴스앨범

- 제38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려
- 한시련,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계절체험활동 실시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열린음악회로 가을 음악 여행 떠나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을의 찬바람이 부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각나는데요.

커피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커피

커피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 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발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ㅗ ⠠ ⠠	ㅛ ⠠ ⠠ ㅜ ⠠ ⠠		ㅠ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ㅜ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ㅗ ⠠ ⠠		ㅅ받침 ⠠ ⠠ ⠠		
약 어	그래서 ⠠ ⠠ ⠠ ⠠		그러나 ⠠ ⠠ ⠠ ⠠		그러면 ⠠ ⠠ ⠠ ⠠		그러므로 ⠠ ⠠ ⠠ ⠠		그런데 ⠠ ⠠ ⠠ ⠠		그리고 ⠠ ⠠ ⠠ ⠠		그리하여 ⠠ ⠠ ⠠ ⠠		
숫 자	수표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 ⠠ ⠠ ⠠										
영 어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영어시작 ⠠ ⠠ ⠠		끝 ⠠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ㅅ, ㅈ]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풀지 못하는 열쇠

이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팀장)



현관기라는 편의시설이 있다. 기능은 말 그대로 현관문에 설치하는 잠금장치이다. 현관기는 키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고, 친구나 부모님이 집을 오신다고 할 때 화분 밑이나 은밀한 장소에 키를 놓아두고 내심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있을 불편함을 없애고자 탄생했다. 문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나름의 전자식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자식 현관기가 대부분 터치식 키패드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키 카드가 없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와 같이 비시각장애인에겐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소위 반쪽짜리 편의시설들이 어떤 연유로 걸러 지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로 동 편의시설들은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로 개인소유의 가전제품의 범주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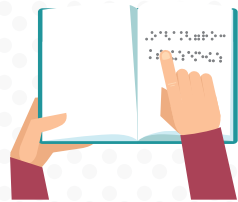
일명 아파트라 하는 공동주택에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므로 집의 평가 기준 중 치안 및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출입문이나 지하주차장 출입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기를 설치하고 설치된 현관기는 대개 전자식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폐 방식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아래 키패드 버튼과 카드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그나마 키패드를 누르지 않아도 카드를 대는 곳의 위치만 알 수 있으면 카드를 대고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대는 곳이 다른 표면과 똑같이 평평하다면 이곳 저곳을 더듬어야 하거나, 경비실 호출 등의 인터폰 기능은 터치식 키패드를 조작해야만 하기에 시각장애인은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키 기능이 없는 키패드 로만 문을 개폐하는 현관기이다. 전자식 키패드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평평한 키패드에서의

번호 위치 파악도 힘들고 입력, 취소 등 다른 버튼까지도 눌러야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만약 타고난 초인적인 감각과 무수한 연습의 노력으로 문을 열었다고 하자. 내 집 들어갈 때마다 이러한 노력이 요구된다면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현관기가 공동주택에 어떤 연유로 설치되고 있는 것일까? 개인 사유의 주택이라도 그 용도가 공동 주택이라면 장애인의 접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편의시설을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 하였다. 즉 전자식 현관기도 편의시설에 속하므로 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제품을 만드는 업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부처, 점검해야 할 기관에서는 단지 ‘현관기’가 점검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러한지 법률에 관련 항목을 찾아보니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록 현관기라는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부착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문출입 을 위한 현관기도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점자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1926년 11월 4일 반포되었는데요.
2017년 11월 4일, 한글 점자가 9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합니다. 6개의 점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제생원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하 송암)에 의해 반포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암은 1920년 이종덕, 전태환 등 8명의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육화사)’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점자, ‘훈맹정음’입니다.

해방 이후 ‘훈맹정음’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호의 점자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경에는 당시 국립맹아학교의 이종덕, 전태환 두 교사와 재학생들의 한글 점자 맞춤법 수정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점자 악보 기록법’이라는 번역물이 발간되어 최초로 악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점자연구활동은 1967년 7월 전국 맹학교 대표들이 모여 ‘한글점자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점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점자(세로축3, 가로축2)는 각 점에 1~6까지의 번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6개 점의 조합을 통해 총 64개의 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들에 한글 자음, 모음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한글점자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에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점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91주년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정책실 이우성 실장,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 국립중앙도서관 박주환 관장, 국립장애인 도서관 이인학 관장, 한국시각 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호식 관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는데요, 이후 점자 공헌자 소개 영상, 점자의 날 기념 노래 제창 등이 이어 졌습니다. 오후 11시부터 3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이룸센터 앞 야외에서 점자체험 및 점자자료 전시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비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벨리댄스로 열린 인생 2막, 송경희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시각장애에도
벨리댄스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송경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시각장애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력이 나빠진 줄로 알고 안경점에 갔었어요. 안경점에서 노안이 온 것 같다고 안경을 맞추자고 해서 안경을 맞춰 썼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시력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방문하게 되었고, 안과에서 소견서를 써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망막색소변성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미용 일을 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25년 정도 미용 일을 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스코리아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벨리댄스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벨리댄스는 시력이 저하될 2012년 쯤 시작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배웠기 때문에 춤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서 벨리댄스를 가르쳐 준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등록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춤이라는 것이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할 텐데, 중도시각장애 이후 벨리댄스를 계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춤이라는 것이 동작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제 모습을 보고 교정을 하면서 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며 막상 벨리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니 그런 두려움은 잠시였고, 다른 감각을 이용해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줄 수 있다



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춤을 추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계속 해서 더욱 어려워지면서 벨리댄스를 그만 둘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점차 시력이 나빠지더라도 제 몸의 모든 감각으로 벨리댄스를 출 수 있는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춤을 출 생각입니다.

벨리댄스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노래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교실에 등록해 다니고 있는데 다양한 노래 경연대회에 나갈 기회가 생겨 대상, 우수상 수상 등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밴드에서는 건반을 담당 하고 있는데, 여러 행사에서 함께 공연하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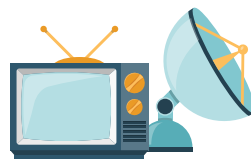
제가 70살이 되면 저만의 작은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7세니까 3년 남았네요. 그래서 콘서트 때 피아노 독주, 벨리댄스, 노래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지금 피아노 곡 ‘은파’를 암기하며 연습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더할 나위 없는 지지 아래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면해설방송의 진단을 위한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 10월 30일, KBS미디어센터에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30일, KBS미디어센터에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화면해설 방송에 대한 진단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재단 주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각자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하종원 교수의 주제발표 ‘《화면해설방송》 다시 생각하기: 영국 사례를 통한 진단과 과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실제 영국에서 화면해설방송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예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내의 상황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등을 화면해설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후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시각장애인 시청자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정승아 씨는 현재 화면해설방송은 대부분 재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 방송사의 입장에서 참여한 채널A의 전략기획본부 이광훈PD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방송사에게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황덕경 부장은 화면해설방송 작가 등 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그에 앞서 화면해설 방송에 대한 많은 방송사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현장해설(화면해설)을 원한다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청도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내의 화면해설방송이 활발해지고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TV시청 및 문화예술의 현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달리기

백창진(시각 1급_경기도 군포시)



두 아들과 함께 송도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코스는 10킬로미터로 결정했다. 사실 초등 3, 4학년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지난번 한강대회에서도 완주한 거리였기에 머뭇거리기 없이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9시가 출발시간이었기에 오전 6시 반에 집을 나와 1호선 당정역에서 시작해 4호선 오이도, 수인선,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까지 대회 장소까지의 여정은 무척이나 길었다.

대회 장소는 무척이나 혼잡했고 어지러웠다.

드디어 출발. 오른손은 큰 아들의 왼손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행하고, 오른쪽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은 차단했다. 남은 왼손은 1미터정도 편 흰 지팡이를 들어 왼쪽으로부터의 충격을 방지하는 세팅으로 달리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30대에 활동했던 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 유니폼까지 입었으니 위험회피를 위한 시각장애 홍보는 2중, 3중으로 이루어졌으리라. 매일 아들과 함께 하는 동네 5킬로미터 달리기는 아주 편안한 레이스를 보장해 주기에 충분했다. 도로 교통통제로 마련된 코스는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와는 달리 일반 보행자나 선행 및 역행주행 자전거의 위험도 배제해 주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을 가이드 하며 달리는 어린이에 대한 격려와 찬사는 가벼운 부담감과 동시에 레이스의 활력소로 작용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달릴 때는 무척이나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다. 90년도 초중반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 때는 1000미터 오래달리기를 학교에서 자주 했던 것 같다. 급수를 부여하는 체력테스트도 있었고, 입시에도 일정부분 점수화되어 반영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럴 때면 달리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한 명씩 한 명씩 앞서가던 친구들을 뒤로 보내는 행위는 몸 전체에 많은 양의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주었고, 그로 인한 희열감은 컸다. 성인이 되어서는 30대 초반에 마라톤을 취미로 했다. 망막색소변성(RP)으로 시력을 많이 잃었고, 시기능이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라톤은 내가 하기에 적당한 스포츠로 여겨졌다. 아니면 오쿠다히데오 단편소설 '아내와 마라톤'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베스트 셀러 작가와 그와 대조되어 초라해져 버린 평범한 아내인 사토미가 선택한 인생 돌파구로서의 마라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 실명과 함께 사회적 위축상태에 빠졌고 외로웠고 고독했으며 무료했다.

마라톤 아니 오래 달리기와의 인연은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올해부터 보행 중에 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형체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시야가

워낙 좁아서 사람들과 부딪치기 일상이고 보도의 볼라드와 같은 지형지물과의 충돌도 잦았다. 더 이상 흰 지팡이 사용을 미룰 수 없는 형편에 접한 것이다. 용기를 내어 흰 지팡이를 사용해 보니 보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으로 넘어선 삶의 전반적인 변화까지 이끌어 주었다. 외부 외출이 잦아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으며 무엇이든지 해 봐야겠다는 의지의 발로까지, 마라톤도 흰 지팡이를 들고 하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마침 경부선 철길을 따라 조성된 동네 둘레길이 달리기를 위한 최적지로 떠올랐다. 둘레길을 왕복하면 대략 5킬로미터 정도 되니 매일의 달리기 거리로도 적당해 보였다. 그렇게 시작한 마라톤은 특별한 사고 없이 6개월이 넘어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3킬로미터를 막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함께 뛰던 둘째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합기도선수로 활동 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 체질이지만 마라톤은 9월초 대회에 이어 두 번째였다. 평상시 매일 달리기를 하는 형과는 달리 연습이 태부족이었을 것이다. 잠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둘째에게 천천히 걸어오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앞으로 나가 버렸다. 하지만 바로 첫째를 혼자 보내고 둘째에게 오른손에 있던 끈을 넘겼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한 통증은 무릎, 배, 가슴, 심장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스캔하듯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래도 견지는 않겠다는 의지만은 강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없어서인지 둘째는 거리표시 사인을 보지 못했다. 피니시(finish)라인 2킬로미터를 남기고 힘을 내어 볼 생각이었다. 아들의 고통으로 빨리 달릴 수 없었던 우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질러가고 있었다. 주변 참가자들에게 남은 거리를 물어보니 1킬로미터 정도 남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아들도 그 소리에 힘이 났는지 지금부터 세게 달려보자는 의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무릎을 올리고 보폭을 늘였으며 숨쉬기 템포를 더욱 빠르게 하며 앞서가는 사람들의 숲을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로 헤쳐갔다. 드디어 사람들의 합성소리를 들으며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먼저 도착한 첫째가 물을 건네주며 혼자달리기의 무용담을 털어내기에 바빴다.

마라톤을 다시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인 것 같다. 어두운 집을 벗어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쫓 빼고 난 후의 기쁨은 무척이나 크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잘된 일이다. 매월 1회씩 대회에 나가겠다는 나름의 계획도 세워 보았다. 아직 폴코스나 울트라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지금 이 정도가 좋고 행복할 뿐이다.

중국의 시각장애 오토바이 수리 명인, 주 슈유



중국 쓰촨성 이빈에는 주 슈유라는 이름의 60세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으로 소리를 이용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주 싼 가격에 오토바이 수리를 해왔습니다.

주 씨는 태어난 지 고작 몇 개월만에 시력을 잃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지만, 청력으로 오토바이를 고치는 놀라운 기술을 연마하여 어머니를 위해 마을에 집을 짓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씨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 시각장애인에게 불꽃놀이 경험 선사해



취리히에 위치한 디즈니 연구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불꽃놀이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불꽃놀이 형태와 모양을 모방하여 물줄기를 이용해 불꽃놀이를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요.

실제로 디즈니의 불꽃놀이를 체험해 본 게리 왓슨은 “이 순간 내가 예전에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던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디즈니에서 개발한 이 기술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불꽃놀이를 체험하며 즐겁고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38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려



지난 10월 17일, 매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지정한 흰지팡이 날을 기념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제38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군악대의 식전 공연 및 흰지팡이 현장 낭독, 유공자 표창과 공로대상,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경품 추첨, 윗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와 외부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국 각 처에서는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어 제 38회 흰지팡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한시련,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0월 23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미디어접근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각장애인의 독서 생활 향상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시청자미디어 센터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 지원 및 시설활용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계절체험활동 실시



지난 10월 25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주최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보릿고개마을에서 시각장애인 39명을 대상으로 계절체험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릿고개마을에 도착해 가장 먼저 순두부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뒤이어 보리 개떡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는 트랙터를 타고 보릿고개마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구마를 캐며 수확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이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열린음악회로 가을 음악 여행 떠나



지난 10월 27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우리들의 세 번째 음악 이야기 -가을여행’이라는 테마로 열린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1년 동안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노원합창단과 힐링맘 가야금 연주단의 공연과 더불어 오카리나와 우쿨렐레, 색소폰 등의 악기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참석 및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을의 선율을 전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흔히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하나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면 한결 낯낯이 밝아집니다. 다음에 같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더라도 또렷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 세상 2017년 11월 208호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